

農業生産組織에 대한 研究*

姜 景 璿

I 序

이제 우리의 農業은 勞動力의 流出, 農業勞動力의 質, 量의 低下, 農外로부터 새로운 技術의 提供(農機械 施設化等)이라는 條件變化에 대응하여야 하고 한편 土地基盤의 未整備속에서나마 生産力의 維持, 發展을 기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農業內外的 變化에의 對應은 價格政策의 對應이 아니라 農業構造政策에 의한 構造改善이라는 次元에서의 接近이 要請되는데 그 한 方向이 生産組織化의 問題인 것이다.

그런데 프랑스, 西獨, 日本등은 家族單位の 農場이 主体로 되어있는 農業構造國家인데 이들은 高度工業化段階에의 對應으로써 농업기본법에 의한 構造改善政策으로 착실히 適應해 가고 있는 사실은 잘 알려진 일이다. 비교적 經營規模가 큰 프랑스에서도 構造改善政策의 施行過程에서 GAEC(農業經營共同集團), CUMA(農業機械, 施設利用組合)등 生産組織이 발전하고 있으며 西獨도 構造改善政策의 進행과 함께 農業의 高度機械化 段階에 들어서면서 Maschinenring(農業機械銀行), Kornlingen(分業經營 Chain)등 農業生産組織을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일본도 계속적인 構造改善政策의 施行과 이에 따른 協業組織, 協業經營 등이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國家들은 工業의 高度化에 따른 農業의 適應—構造改善에 의한 對應이라는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의 農業도 1967年 農業基本法이 마련된 바 있고 여기에 協業의 助長—農業의 組織化方向을 提示해 주고 있어 벼집단체배등 착실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으며 機械化, 施設化에 直面하여 効率的인 共同利用이라는 方向에서 生産組織問題가 중요롭게 提起되고 있다.

그래서 本研究는 農業生産組織의 問題를 一般組織理論을 理解하는 과정에서 生産組織理論의 體系化를 追求하여 그 內容을 理論的으로 展開해 보았다. 원래 의도했던 比較研究까지는 이르지 못하여 계속 比較研究 뿐만 아니라 生産組織과 地域計劃과의 Chain문제—地域農業의 system化論등 研究가 더 進행되어야 할 것이다.

* 이 논문은 1980년도 문교부 학문연구 조사비에 의한 것임.

II 組織理論

II-1 組織理論의 發展

組織理論(organization theory 또는 theory of organization)은 組織(organization)을 中心된 關心事(對象)로 하는 複合科學的(interdisciplinary) 研究活動의 集合體라 규정할 수 있으며¹⁾ 研究傾向性 變遷過程을 古典理論, 新古典理論(反撥期的 理論) 그리고 現代理論으로 代제적인 구분을 하고 있다.²⁾ 이러한 區分에 따른 內容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傳統的 組織理論(古典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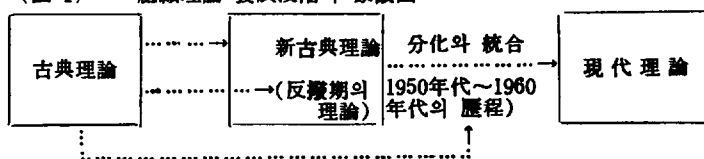
1900年代 初부터 싹트기 시작하여 1930年代에는 거의 확실한 윤곽을 드러내고 1940年代까지 成熟을 본 組織理論의 한 主流를 古典理論이라 한다. 內容은 組織活動을 專門業務單位로 나누어 業務를 수행하는 機構가 中心的인 課題로 되어 있다. 業務는 그것을 監督하고 命令하는 一段上의 機關에 의하여 統制된다. 上位機關은 下位機關의 業務에 命令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지며 下位機關은 命令에 따를 義務를 갖게 한다. 여기에 權限과 責任을 中心으로 한 統制된 階層制 組織 model이 出現을 보게 된다.

傳統的 組織理論의 中心課題는 이러한 權限을 業務單位의 內容에 따라 가장 합리적으로(業務가 組織目的에 가장 効率的으로 될 수 있도록) 配分하는 것이었다. M. Weber는 그러한 組織의 典型으로써 官僚制를 提示하였는데 官僚制에서는 權限이 가장 明確하게 規定되어 있어서 이다. 한편 F. W. Taylor는 기계공학도로서 人間勞動의 合理化問題를 科學的 管理論으로 体系化시켰으며 과거의 直感과 主觀구구식 經營에서 탈피하여 科學的인 管理를 하자는 것이 主眼點이다. 動作研究, 課業管理로 알려진 科學的 管理法은 組織成員을 物的 生産手段과 같이 쉽게

1) 吳錫泓, 組織理論, 博英社, 1980, pp. 5-9.

2) A. Etzion은 古典理論(Classical Organization Theory) 人間關係論(Human Relations) 및 構造論(Structuralist Approach)으로 區分하고 있으며 R. J. S. Baker는 古典理論, 人間關係論 및 그에 관련된 理論(Human Relations and Related Theories) 그리고 有機的 理論과 體制理論(Organic and Systems Theories)으로 三大別하였다. D. Waldo는 組織理論의 發展段階를 古典理論, 新古典理論 및 現代理論으로 區分한 바 있다.

〈圖 1〉 組織理論 發展段階의 象徵圖



操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人間的 要素를 無視한 機械論的인 組織이 여기에 묘사되어 있다. 이 理論은 企業組織의 大規模化와 機械化로 組織의 人的 要素를 合理的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提起시켰으며 기계공업에서의 conveyer system 開發에 이어 오늘날 IE로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作業過程에서 生産性向上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評價되고 있지만 한편 科學管理의 接近自体와 勞使關係에 대한 태도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古典理論에 속하는 流派는 ① Taylor가 개척자로 되어 있는 科學的 管理學派(Scientific Management School), ② Gulick, Urwik 등에 영도된 行政管理學派(Administrative Management School), ③ Weber의 官僚制理論(Theory of Bureaucracy)이 있다.³⁾

(2) 人間關係論的 組織理論(新古典派)

1930年代부터 이미 출발되었고 1940年代에는 상당한 위세를 떨쳤으며 1950年代에 이르러 보다 넓은 視野를 갖게 된 하나의 研究傾向을 新古典理論이라 하고 있다.⁴⁾ 內容을 간추려 보면 傳統的 組織理論은 業務의 考察을 中心으로 하고 있어 그것을 實行하는 人間을 輕視하였는데 人間關係論에서는 構成員의 情感과 Informal組織의 重視는 아주 對照的이다. 前者는 人間을 組織에 필요한 機能의 擔當者만으로 보아 非合理的인 側面을 排除하고 後者는 반대로 非合理的인 측면을 강조하여 合理的인 側面을 輕視하였다. 또한 公的인 組織속에 Informal組織이 있음으로써 自生의 小集團을 만들어 公的인 組織行動에 중요한 役割을 갖는다고 指摘, Informal Group의 研究가 이루어졌으며 人間關係論의 가장 效率的인 組織이란 구성원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조직인 것이며 여기에는 人間의 社會的 欲求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직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人間關係論(Human Relations Approach)은 古典理論에 대한 反論의 형태로 출발하여 발전을 거듭하면서 現代組織理論의 형성과정에 大인한 영향을 미쳐 왔으며 호오손實驗(Hawthorne Studies)을 계기로 형성된 E. Mayo의 人間關係論은 組織에 있어서의 人間觀을 變역시키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⁵⁾ E. Mayo는 人間關係論의 始祖로 간주되고 있으며 연구경향의 출발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극을 준바 있는 John Dewey, Kurt Lewin, Mary Follett 등의 공적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現代 組織理論

C. I. Barnard는 組織에 있어서의 人間을 沒個性化된 純粹한 機能的 側面과 全人格的인 立場

3) 吳錫泓: 前掲書, p. 76.

4) 吳錫泓: 前掲書, p. 9.

5) Elton Mayo: 産業文壇における 人間問題(持本第一譯), p. 17.

에서 行動하는 個性的 側面과의 2가지 側面을 포용하여 前者를 組織目標의 達成, 組織의 役割⁶⁾ 分化등을 組織의 機能的 体系의 基礎로 하고 後者를 組織의 人間活動 動機 혹은 私的滿足에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人間觀下에 組織은 目標達成에 있어서의 組織의 有効性 (Effectiveness)과 構成員의 개인적 만족에 관계되는 組織의 能率(Efficiency)를 동시에 추구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⁶⁾ 그러나 「有効성과」 「能率」은 항상 調和的인 것은 아니며 對立的이다. 이러한 對立하는 諸要素의 구체적 통합물이 組織이며 組織「管理者의 機能은 구체적 행동에 있어서 矛盾하는 諸力의 統合을 促進하여 對立하는 諸力, 本能, 利害, 條件, 立場, 理想을 調整하는 것이다」⁷⁾라고 Barnard의 組織理論에서 밝히고 있다.

한편 現代組織論은 2가지의 主流를 基로 하고 있는데 첫째는 行動科學的 接近方法인 行動科學的인 組織論의 특징은 組織을 動態的인 과정으로 보는 점, 個人으로서의 人間行動 目標와 組織目標와의 統一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 인간의 能力開發과 組織에의 참가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또한 主要한 관심은 組織內部的 意志決定過程과 問題解決 과정에 두고 있으며 意志決定은 management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組織을 여러가지 단계에 따라 意志決定을 행하는 많은 部分이 結合된 것이라고 보는 見解이며 둘째로 組織에 대한 system論的인 接近方法(Systems Approach)인데 組織을 研究하는 가장 有効한 方法은 組織을 System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⁸⁾ 組織理論은 System理論의 一部여서 특히 人間社會組織을 研究對象으로 하는 것이며 組織은 垂直的인 계층적관계 뿐만 아니라 水平的인, 橫的相互關係, Feed Back關係 등이 중요시 된다.

이상과 같이 組織理論의 生成 發展을 간단히 살펴 보았는데 사실 工業의 發展은 生産組織의 歷史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工業은 機械化技術과 組織的 技術(分業과 協業)의 發展에 따라 오늘의 巨大한 工場制로 발돋움해 온 것이다. 그런데 工業보다도 歷史가 오랜 農業은 技術 發達이 완만하다. 그것은 農業이 土地生産이고 有機的 生産으로서 工業에 비하여 기술적으로 특수한 側面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工業의 生産組織理論은 農業에도 通用할 수 있는 一般性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生産組織의 合理化를 主題로 하는 學派는 經營管理學 쪽인데 經營管理學의 발전을 보면 作業組織의 能率問題, 作業은 人間을 통하여 달성됨으로 이에 대한 組織管理 문제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따라서 經營組織論은 經營學의 중요한 분야를 이루고 있다. 農業經營學에서도 農業經營의 經營過程(process)을 검토 대상으로 하여 經營管理行動을 「計劃—實施—評價」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一般經營論에서 말하는 「plan-do-see」의

6) C. I. Barnard: 經營者の 役割(山本鏡外譯), p. 20, 60, 95, 245.

7) C. I. Barnard: 前掲書, p. 22.

8) R. A. ジョーンソン等: 横山譯, 「システム理論とマネジメント」, 日本生産性本部, p. 70.

순환과정과 마찬가지로 農業의 經營管理過程을 分析하려 하고 있다. 한편 農業에 주어진 最大의 課題는 低生産性を 克服하여 農業을 効率化시켜 나가는 길인데 農業自体가 對應하며 解決하여 나가는 데에는 그전과 같은 小規模生産形態, 舊式의 市場構造로는 도저히 不可能한 것이다. 現實적으로 效率의 觀點에서는 經營規模擴大를 통하여 勞動生産性向上을 必要로 하고 있지만 쉽사리 大規模化는 달성키 어려운 것이다. 어떠한 小農克服을 위한 土地, 勞動, 資本의 生産要素를 再編整備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消費, 流通面에서는 大規模, 大量의 處理技術에 適應하기 위해 生産자의 生産활동이 計劃的, 組織的인 필요가 있다. 이러한 生産·流通體系의 變化에 대응 할 수 있는 組織開發이 농업부문에서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農業組織에는 生産組織, 販賣組織 혹은 農協組織 등의 概念이 있는데 本 研究는 生産組織의 問題를 組織論의 立場에서 體系化하는 데 그 目的이 있음을 밝혀둔다.

II-2. 組織의 定義

「現代는 組織의 時代」라고 NAM(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s of the USA)會長이 말한 바 있지만 사람들은 組織속에서 또는 組織에 얽힌 가운데서 살고 있으며 또한 組織에 참여하거나, 組織을 管理하거나, 아니면 영향을 받아야 하는 時代에 우리는 살고 있다. 社會가 발전하고 變動의 速度가 빨라질수록 조직이 인간생활에 접하는 비중은 더욱 커지고 따라서 조직에 결부된 問題性도 그만큼 심각해진다. 사람들은 여러가지 형태로 모여서 組織單位를 이루어 생활하고 있는데 이러한 組織의 定義는 어떠한 것인지 몇몇 學者들의 見解를 알아 보기로 한다.

① M. Weber는 組織을 協同集團(Cooperative Group, Verband)의 下位概念으로 보아 閉鎖되어 있거나 規制에 의하여 外部人의 加入이 제한되어 있는 社會關係이며 特定人들에 의하여 질서가 유지되는 관계라 규정하고 있다.⁹⁾

② T. Parson은 組織을 集合體(Collectivity)의 下位概念으로 보아 集合體는 利益社會의 인 것과 Gemeinschaft 적인 것으로 나누고 組織은 利益社會의 인 것에 속하는데¹⁰⁾ 組織이 다른 集合體의 형태와 구별되는 가장 독특한 성격은 독특한 目標의 달성에 가장 우선적으로 志向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리고 그는 組織이 追求하는 目標의 共有의이며 集合的인 本質을 강조하

9) Max Weber: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translated by A. M. Henderson and Talcott Parson(the Free Press, 1947), pp.136-152. 吳錫泓, 前掲書, p.53에서 인용.

10) T. Parsons; The Social System, Glencoe, III: The Free Press, 1951, pp.39-41. 金晉均, 慎侑根: 經營組織論, p.18에서 인용.

고 있다.¹¹⁾

③ A. Etzioni의 組織概念은 상당히 구체적이며 Parsons의 組織概念을 계승하여 「조직은 특정한 목적의 追求를 위하여 의식적으로 구성되고 또 재구성되는 社會的 單位(또는 人間의 集合)이다」라 하고 組織의 要件으로 다음 세가지를 들고 있다.

1) 勞動, 權限 및 意思傳達責任의 分擔, 2) 組織의 共同努力을 統制하고 이를 組織의 目的에 指向시키는 勢力中樞(Power Centers)의 存在, 3) 구성원의 代替등에 의하여 組織은 특징 지워진다.¹²⁾

이상의 見解를 綜合하여 吳錫泓教授는 “組織이란 人間의 集合체로서 特定한 目的의 追求를 위하여 意識적으로 구성된 社會的 單位”라 정의하고 있다.

한편 經營組織의 概念은 통일되어 있지 않지만 Louis A. Allen은 「사람들이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가장 效果的으로 協力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할 事業의 性質을 明確化하여 編成하고 책임과 權限을 분명히 하여 이를 委讓하며 諸關係를 設定하는 過程」이다¹³⁾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共通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相互間에 意識적으로 調整된 多數人의 行爲體系」¹⁴⁾인 것이며 形態적으로는 「人間의 集團形態」가 바로 조직인 것이다. 각각 표현은 다르지만 組織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要件이 포함되어 있다. ① 目的이 明確하다는 점, ② 目的을 效率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해야 할 職務가 확실하다는 점, ③ 各職位의 책임과 權限이 명확하여 職位間의 權限委讓과 相互關係가 體系化 되어 있다는 점.

이러한 要件을 갖춘 組織形態는 하나만은 아니며 몇개의 系統이 세워져 분류되지만 經營管理理論에는 組織形態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 i) line organization
- ii) functional organization
- iii) line and staff organization
- iv) Committee organization

다음에 살필 農業生産組織은 Committee 組織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II-3. 組織의 成立과 存續理論

(1) 組織成立의 內部條件

現代 組織理論을 확립한 C. I. Barnard는 組織에 內在하는 物的要素, 財政的要素, 人間活動등

11) T. Parsons: Structure and Process in Mordern Societies, New York: The Free Press, 1965. p. 17. 金晉均, 慎侑根, 前掲書, p. 18에서 인용.

12) A. Etzion: Mordern Organizations(Prentice-Hall, 1964), 吳錫泓, 前掲書, p. 57에서 인용.

13) Louis A. Allen: Management and Organization, New York: McGraw-Hill Book Co., Inc, 1958.

14) 占部都美: 近代經營管理論, 다이아몬드社, 1968, p. 102.

여러가지 중에서 人間活動을 중요시 하며 組織의 構成員에 초점을 둔 定義를 하고 있으며 M. Weber는 組織의 体制 또는 構造에 역점을 두고 있다. 組織은 「一定的 目的達成을 위하여 2인이상의 人間活動이나 諸力の 意識的으로 調整된 体系」¹⁵⁾로서 定義하고 있어 人間の 社會現象속에서 組織을 파악한 廣義의 개념을 밝히고 있다. 그 內容은 3가지 部分으로 성립하고 있는데 첫째 織組이 2人以上의 사이에 協力關係에 의한 것이며, 둘째 組織構成員이 協力關係속에서 서로 行動을 수정 또는 촉진하기도 하면서 조정해 나간다는 점, 셋째 이러한 관계가 一定期間 存續하여 体系를 이루고 있다는 점등이다. 이와같이 人間の 要素 내지 行態의 要素가 매우 강조되어 Barnard는 조직에 기여하려는 意欲을 설명하면서 意欲水準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個人의 意欲水準은 변동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組織에 기여하려는 意欲은 사람들이 組織에서 얻는 만족에 달려있기 때문에 조직은 참여자들의 만족을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들의 주변에는 組織의 生成, 發展, 消滅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組織이 存續, 發展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組織에 共通된 몇가지 要因이 作用하고 있는데 Barnard는 組織存立의 3要素와 相互依存關係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즉 組織의 三要素란 ① 意思傳達(commun-ication), ② 貢獻意欲(willingness to serve), ③ 共通目的(Common purpose)이다.¹⁶⁾ 사람들이 共通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的意적으로 參加를 表明하고 서로 긴밀한 意思傳達가 가능한 상태에서 協業活動을 한다면 組織은 成립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의 意欲(willingness to cooperate)은 組織을 위한 自己克服과 個人行動의 非個人化를 內包하고 있으며 그러한 意欲은 團合된 努力을 結果한다. 組織은 사람들의 協同体系이므로 協同을 하는데에는 당연히 目的이 있게 마련이고 여기에 意欲的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여 行動을 制御하는 相互傳達의 体制가 갖추어지면 3要素의 相互依存關係가 成立, 사람들의 集團은 단순한 群衆이 아니라 組織으로서 形成을 보게 된다. 또한 Barnard의 組織論에서는 組織을 그의 目標達成에 관계되는 組織의 有効性(effectiveness)과 構成員의 개인적 만족에 관계되는 組織의 能率(eficiency)과를 분리 이들이 同時에 追求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Barnard의 組織論은 構造的 緊張model의 典型으로 우리는 보는데 이러한 組織觀은 C. Argyris의 組織論(건강한 personality의 成長 傾向과 formal한 조직 要件과의 不適合을 밝힘)¹⁷⁾, 命令統制에 대한 傳統的 見解(X理論)에 대하여 從業員 個個人的 目標과 企業目標와의 統合(Y理論)을 강조한 D. Mc Gregor의 組織論¹⁸⁾, 組織의 外部環境에의 「適應性과 內部的 人間の 側面的 調整, 「相互性」을 同時에 만족하는 「有機的 適應構造」를 官僚組織에 代替되어야 한다고 하는 W. G. Bennis의 組

15) Chester I. Barnard: Function of the Executive, Harvard University Press, 1938, p. 73 and pp. 82-95.

16) C. I. Barnard: 新譯 經營者の役割(山本, 由杉, 飯野譯), 1974, p. 85.

17) C. Argyris: Personality and Organization(Harper & Row), 1957.

18) P. McGregor: 企業の 人間の 側面(高橋達男譯).

織論¹⁹⁾도 공통된다.

(2) 組織存續의 內部條件

組織內部均衡 즉 組織存續을 위한 個人과 組織關係를 要約해 보면 조직에 대한 構成員의 協力을 貢獻(Contribution)이라 하며 이 貢獻을 組織의 目的達成에 構成員이 組織에 제공하는 負擔을 뜻한다. 이는 組織의 종류에 따라 단순한 희비부담, 회합에의 출석으로 부터 노동제 공 등에 이르고 있으며 貢獻은 反對給付로서 조직으로부터 주어지고 있는 誘因(inducement)의 크기에 比例된다. 誘因이란 組織이 個人을 끌어들이는 힘이며 개인에게 주어지는 效用을 의미한다. 즉 誘因은 個人的 動機나 目標을 만족시키는 經濟的 및 非經濟的 效用을 뜻하는데 조직의 종류에 따라 달리하며 宗教團體와 같은 非經濟的 組織에 있어서는 精神的 滿足感으로 限定되지만 企業과 같은 經濟的 組織은 賃金이 바로 誘因의 主体가 된다. 물론 物質的 誘因이 그 全部는 아니며 參加에 따라 얻어지는 非物質的인 誘因이 附加됨으로써 個人的 만족은 확대되어 誘因의 總量은 增加한다. 誘因은 協同意欲의 源泉이 되는 것이며 誘因과 貢獻간에는 서로 대응하는 관계가 성립한다. 만약 誘因은 준비되어 있어도 貢獻이 없으면 組織은 존속될 수 없는 것이고 誘因이 없는 貢獻은 個人으로서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그러므로 組織의 存續과 成長은 個人으로부터 貢獻繼續이 必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誘因이 제공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組織均衡論」이 전개되는 것인데 그 關係를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貢獻 \rightarrow 誘因 \rightarrow 組織의 存續과 成長 즉 組織均衡이란 貢獻과 誘因의 均衡인 것이며 이 兩者가 均衡하므로써 組織은 存續條件이 갖추어지는 것이고 成長을 可能케 한다. 組織均衡論에서는 組織均衡을 구성하는 重要命題를 다음과 같이 5가지를 들고 있다.²⁰⁾ ① 組織은 參加者와 相互 關聯하는 社會的 行動體系이다. ② 參加者 및 參加者의 集團은 組織으로 부터 誘因을 얻고 反對給付로 組織에 貢獻한다. ③ 參加者는 제공되는 誘因이 貢獻과 일치하거나 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組織에의 참가를 계속한다. ④ 또한 참가자가 제공하는 공헌은 조직이 참가자에 주어지는 誘因을 만들어 내는 源泉이 된다. 즉 공헌은 유인의 원천인 것이다. ⑤ 따라서 공헌을 끌어낼수 있을 정도의 誘因이 있는 한 組織은 支拂能力을 유지시킬 수 있게 된다.

上記한 바와 같이 참가자측에서 본 공헌과 유인균형이 바로 조직존속의 必須條件이 되는 것이며 Barnard는 「個人은 항상 組織의 基本的인 戰略的 要因이다」²¹⁾라 하여 個人的 참가와 공헌의욕이 組織을 지탱케 하는 根幹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당연히 農業에 관한 生産組織에 있어

19) Warren G. Bennis : 組織의 變革(壽田一男譯).

20) J. G. 마르치, H. A. 사이먼 : 「Organization」, (土屋守章譯), 1977, p. 28.

21) C. I. Barnard(山本等譯), 前掲書, p. 145.

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原理라 생각된다.

(3) 組織發生要因

組織이란 協同의 利益을 찾는 사람들의 社會的 行動이라 한다면 人間社會에는 끊임없이 각종 조직이 형성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生活의 基本적조직인 家族은 거의 영속적인 조직단위이며 우리나라의 마을은 時代에 따라 때로는 방위를 담당하고 때로는 生産의 共同체로서의 意味를 가지면서 유지되어 왔다. 近世以後는 종교조직 보다도 經濟的 組織形成이 표면화 하여 企業組織의 全盛時代를 마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영리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은 公共的 組織이 多數형성되고 있어 多元的 組織의 時代라고도²²⁾ 말해지고 있는 것이다. 組織에는 이와같이 그 나름의 歷史的, 文化的 背景에 따라 어느 일정한 방향으로 組織形成을 促進하는 힘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조직형성에 작용하는 이러한 社會的 힘은 外部要因, 혹은 環境要因이라 할 수 있으며 앞에서 말한 組織形成의 三要素는 內部要因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目的, 參加意欲, 傳達要素가 갖추어지는 것은 組織形成으로서 必須條件이 됨과 동시에 조직을 성립시키는 充分條件이 된다) K. E. Boulding는 組織發生要因을 다음과 같이 2가지점을 지적해 주고 있다.

첫째 社會의 基本的 資源 즉 自然資源, 人間資源, 技術資源 供給이 制限되어 있을 경우인데 人間이 만들어온 각종의 경제조직은 여기서 말하는 社會의 基本的인 資源供給 制限에 對處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 최근 農村勞動力의 不足에 對應하기 위한 機械化가 본격화 되면서 機械의 共同利用, 集團栽培組織등은 그 한 例라 생각된다.

둘째 協力에 따라 發生되는 (經濟的)利益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個人은 서로 다른 能力에 따라 專門化를 통하여 협력하든가 혹은 個人으로는 利用할 수 없는 生産用具를 共同으로 利用하는 등 全体로서는 經濟的 福祉가 擴大될 수 있다. 經濟組織은 上記 2가지 요인에 지지되어 형성되어 왔으며 첫째의 資源供給은 制限이 擴大 될 수록 個人間的 協力關係는 보다 긴밀하여지는 경향을 보일 것이며 둘째 協同의 技術的 利益은 專門化의 經濟性이나 規模의 經濟性을 追求하는 데서 經濟社會를 支配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工業에서는 上記 두가지 理由가 뚜렷하지만 農촌, 농업에서는 명료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없기도 하다. 그것은 농업이 갖는 性格 특히 生業으로서의 農業經營이 어쩌면 排他性을 갖기 때문에 사실 둘째의 理由가 分明함에도 불구하고 組織化가 곧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농업에의 組織活動은 例를 들면 高度의 協業經營으로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기계의 공동이용등 協業組織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22) P. F. Drucker : 抄譯 management(上田惇生譯), 1970, p. 85.

한편 組織과 社會構造와의 관계를 다룬 A. C. Stinchcombe는 組織의 生成과 歷史的 條件을 검토하고 새로운 組織이 生成하는 社會構造的 條件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²³⁾ 새로운 組織을 生成시키려면 첫째 業務를 수행하는 여러 방법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하고 둘째 費用—利益 分析의 側面에서 매력적인 것으로 보여야만 한다. 세계 關여한 사람들이 富·權力, 正當性 및 勞動과 같은 資源을 충분히 가려서 새로운 組織의 기반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새로운 組織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옛 體制를 유지코자 하는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組織은 經濟領域에 있어서 高度의 technology의 발전에 기초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과학제도의 분야가 담당하며 追求하고 있는 知識을 体系的으로 적용하고 一次産業에 비하여 二次, 三次 産業이 발전하므로서 촉진되었다.²⁴⁾

이제 農業에 있어서도 內外的 要因으로 生産組織形成이 요청되고 있는데 다음에 자세히 論及하겠지만 우선 한두가지만 들어보면 農業生産이 기계, 시설의 고도화에 따라 生産機能의 分化에 입각한 社會的 分業進化가 앞으로 하나의 특징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畜産의 育成機能 分化, 獨立方向, 사료생산의 분화, 耕種部門에 있어서의 種苗供給, 病虫害防除의 기계화등으로 농업의 생산조직화 문제는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제기될 것이라 생각된다.

Ⅱ 農業生産組織의 現代的意義

Ⅱ-1. 農業環境變化와 組織化의 要請

農業分野에서의 生産組織形成要因은 첫째 農家の 兼業化進展, 農業勞動力이 非農業部門에의 流出, 農業勞動力의 質, 量의 低下와 이에따른 農業勞動組織의 再編, 둘째 農業에 있어서의 技術革新의 進行 勞動對象(品種, 農藥, 肥料等)의 技術進步, 勞動手段(특히 農業機械)의 기술혁신, 특히 새로운 기술이 공업으로 부터의 供與, 세계 土地基盤의 未整備, 用排水施設의 재정비, 用排水의 共同的 利用規制, 기계화를 저해하는 포장조건(農道, 圃場區劃), 圃場의 영세분산성 등 生産性を 형성하는 三大要素의 변화와 制約要因에 대응하여 이들을 再編成하려는 것이 생산조직 형성의 요인이라 생각된다. 물론 생산조직이 형성되어 나감에 있어 상기한것 중

23) A. L. Stinchcombe "Social Structure and Organization" in J. G. March(ed), Handbook of Organization Chicago: Rand Mc Nally & Co, 1965, pp.142-193. 金晉均, 慎侑根, 前掲書, p. 451에서 인용.

24) S. W. Eisenstadt: Modernization: Protest and Change,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66, 呂井東, 金晉均譯, 「近代化低抗과 變動」, 1972, p. 3.

한가지 만이 規制要因으로서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세가지 요소가 서로 얽혀서 作用한다. 그러므로 생산조직이라 概括적으로 表現되고 있지만 상당히 多樣性을 갖게 마련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농업조직화의 일반적배경을 요약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農業勞動力 質·量의 低下와 協業作業組織

農業勞動力의 非農業部門에의 流出, 이에 따른 농업노동력의 質의 低下, 농업고용노임의 急上昇이라는 要因이 農業勞動組織 再編成의 必要性을 가져와 그의 對應形態로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 協業作業組織(例 농기계의 공동 이용등 벼집단체배)이다.

農家人口 및 勞動의 감소 과정은 相對的인 減少段階와 絕對的인 감소단계로 나누어 진다. 농가인구의 구성비는 1956년에 60%, 13年後인 1969년에 50%, 1974년에 40%였고 1977年 현재 약 33.8% 水準으로 加速的인 감소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農家の 절대인구는 1960年中半期까지 계속 증가해 오다가 농가인구의 구성비가 약 53%이었던 1967年을 고비로 감소추세로 바뀌어 그후 10年동안에 약 1/4의 인구가 감소되었다.²⁵⁾ 이와같이 농업노동력의 감소와 이에 따른 勞賃上昇은 (지난 10年間 농업생산요소의 가격상승을 비교해 보면 非農業部門의 확장 에 따라 供給이 탄력적인 농기계, 비료, 농약의 가격은 각각 약 3.4배, 4.0배, 2.3배로 상승하였으나 供給이 非彈力的인 勞動과 耕地의 價格은 약 9.0배, 17.6배로 각각 상승하였다) 農業의 構造的인 調整을 要求하고 있다. 勞動力減少와 勞賃上昇에 對處할 調整은 농업의 기계화 를 要求하고 이를 위해서는 耕作規模擴大가 充足되어야 하나 規模擴大를 위한 構造改善政策은 그동안 여러나라에서 推進되어 왔으나 그 진척은 기대이하라는 미미한 상태이다.²⁶⁾ 어떠한 土地節約의 技術體系에서 勞動節約의 體系에로의 移行과 이에 따른 농업기계화 문제는 우리농업이 당면한 과제의 하나이며 이러한 문제의 接近은 價格政策的 次元이 아니라 構造政策的 次元에서 構造改善이라는 長期的 目標下에 일관성있는 제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시점에서 있는 것이다.²⁷⁾

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업구조개선과 기계화전략(연구보고), 1979, p. 1.

2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환기의 한국농업, p. 74.

27) H. H. Herlemann : Grundlagen der Agrarpolitik, Die Landwirtschaft in Wirtschafts Wachstum, 1961. 에서 보면 四段階의 農業發展을 論及하고 있는 데 참고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第1段階 : 稠密段階, 第2段階 : 集約化段階, 第3段階 : 機械化段階—이 단계는 工業化를 中心으로 加一層의 經濟的 發展時期에 對應하여 다탄다. 농업이외의 산업의 폭발적인 발전에 의하여 勞動賃金이 급격하게 상승하며 勞動力移動이 계속되어 농업부문의 종사자가 현저히 감소한다. 대개 이와 反面에 工業的 製品의 農業利用이 높아지며 그 사용범위가 확대된다. 특히 동귀하는 勞賃에 代替할 機械의 利用이 擴大되며 보급이 증대된다. 資本利用이 量的으로 증가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동절약을 하기 위한 機械資本이 投下되어 그 結果 勞動生産力이 높아지며 농업소득 향상 이 이룩되는 時期로 특징지워 진다. 한국은 대략 이 時期에 처해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第4段階 : 經營擴大段階—유럽 각국에 해당.

한편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취업자중 50才이상의 노령자가 67년의 20%미만에서 77년에는 25.4%로 높아졌고 부녀자 취업자도 약 40%에서 42.3%로 증가하였다. 이와 반대로 25~49才계층의 취업자 구성비는 57.1%에서 54.3%로 떨어졌다. 이러한 농업노동력의 婦女화와 老齡化에 의한 質的低下는 앞으로의 農業發展에 중요한 제약요소가 될 것이다.

<表 1> 性別 年令別 農業就業者 構成費의 變化

區 分	就業者 構 成 比 (%)	
	1967	1977
14 ~ 24 才	22.9	20.3
25 ~ 49 才	57.1	54.3
50 才 이상	19.9	25.4
婦 女 子	40.0	4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환기의 한국농업, p. 78.

(2) 勞働手段에 대한 技術革新과 生産組織

<表 2> 농업경영 구조의 주요 변화

구 分	1967	1977
농 가 호 수 (千戶)	2,587	2,304
경 지 면 적 (千ha)	2,312	2,231
농 가 호 당		
경 지 면 적 (ha)	0.89	0.97
(借用地比率 %)	(16.7)	(18.2)
영 농 종 사 자 (인)	3.12	2.74
동 력 농 기 계 (Hp)	0.25	1.04
경 지 ha 당		
영 농 종 사 자 (인)	3.51	2.82
동 력 기 계 (Hp)	0.29	1.07
무 하 노 동 (月)	300.20	231.00
축 력 투 하 (月)	13.1	8.4
영 농 종 사 자 1인당		
경 지 면 적 (ha)	0.29	0.35
영 농 작 업 일 수 (月)	94.30	84.30
동 력 농 기 계 (Hp)	0.08	0.3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계서, p. 77.

<表2>에서 보는 바와같이 耕地 ha當 動力農機械保有는 1966年~1977年 期間 동안 약 0.3마력에서 1.1마력으로 增大되었으며 (日本의 1977年 ha當 약 10.1마력에 비하면 아직 초보단계에 있음) 이제 本格的인 推進段階에 있어 기계화는 급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就業者當 기계

마력수는 年平均 15.9%의 속도로 增加할 것으로 豫測되고 있어 1人當 機械裝備率이 77年 0.46 마력에서 1986년에는 1.73마력, 1991년에는 3.63마력으로 증가하게 되어 現在 日本의 就業者 1人當 機械裝備率 8.09마력의 45%수준이 된다. 그런데 그동안 농가인구의 계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經營規模의 영세성은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큰 변화는 예상될 수 없을 것이다.) 1977年 현재 1ha미만 농가는 총농가 호수의 약 64%, 총경지 면적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與件下에서의 기계화문제는 첫째 농업기계화의 經濟合理性問題 즉 농업기계화→과잉 투자의 문제이며 둘째 농업기계화와 規模의 經濟性 問題이다. 그 전까지는 「生物學的, 化學的 技術發展」이 支配的이었던 한국의 농업이 規模에 대하여 收益不變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되었지만 「機械的 技術發展」—農業機械化는 농업에 있어서도 規模에 대한 수익체증의 관계를 가져 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상의 2가지 문제는 前者가 機械(plant)의 操業度의 問題로서, 後者가 規模의 問題로 提起되며 이러한 문제가 同時에 解決되어 나가야 될 것이다(農機械利用 組織의 開發—地域의인 즉 團地農業으로의 對應)

사실 품종의 개량, 육성, 施肥, 土地改良, 栽培管理 등으로 代表되는 勞動對象의 土地節約의 인 기능적 기술은 多額의 資本投下가 적고 投下된다 하더라도 資本財는 分割性(divisibility)이 가능하여 규모문제에의 연관성은 적었지만 機械化로 代表되는 勞動節約의인 手段使用的 技術發展은 多額의 資本投下가 필요하고 投下되는 資本財는 不分割性(indivisibility)이 支配的이기 때문에 당면 規模問題—規模의 經濟性을 追求할 수 밖에 없다. 또한 勞動手段에 結合되어야 할 다른 생산요소량(특히 土地), 資金力, 經營者能力, 危險에 대한 性向, 技術에 관한 知識蓄積 등 內部條件의 高度화와 外部條件—生産物, 生産要素市場등에 민감한 대응이 요청된다. 이러한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對應은 農業生產組織(→地域農業의 組織化 및 大規模販賣組織에서 그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生産力 高度화가 個別經營으로서의 실현키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살필 營農集團에 의한(個別經營의 經營機能擴大過程으로서) 地域的 適應 즉 自作農의 自己完結的인 生産形態를 새로운 生産機能의 分業과 協業體制라는 方向이 바라지고 있다.

現代社會는 「組織의 時代」라 말해지듯이 組織을 主要한 社會尺度로 하는 時代가 되었다. 企業體社會(plant community)로 代表되는 大規模組織이 非農業社會에서 支配的인데 農業者만이 無組織 그대로 존속할 수는 없다. (물론 協同組合이 있지만) 1967年 農業基本法이 公表되면서 協業營農이 提起되어 示範 協業農場의 出現 등 協業組織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變化하는 社會에 적응되지 못한채 혹은 政策的 貧困으로 두렸한 발전을 보여주지 못하였지만 최근 營農團地造成, 벼集團栽培, 새마을 운동등이 전개되면서 농업생산조직은 심화 발전되고 있다. 조직의 시대에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는 농업속에 새로운 組織이 開發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농업생산조직은 현대 농업문제의 主要한 課題의 하나가 되고 있다.

한편 현재의 社會的 經濟的 情勢下에서 農業者는 다음과 같은 條件下에 있다고 본다. 첫째 農產物市場의 경제조건에 적응하기 위하여 大規模化 및 企業經營化를 追求하게 될 것이고 둘째 환경보전 및 자연자원 有效利用의 社會的 要求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로는 個別經營에 의한 對應의 域을 넘어선 革新技術導入에 따라 生産性向上을 기해야만 한다. 이 세가지 與件中 첫째 둘째 것은 앞에서 살핀 一般組織發生의 要因으로서 제시된 社會的 資源의 공급제한에 의한 組織形成要因에 해당하는 것이고 셋째것은 協力에 따라 發生하는 經濟的 利益을 目的으로 하는 要因에 해당 될 것이다.

Ⅲ-2 農業經營과 生産組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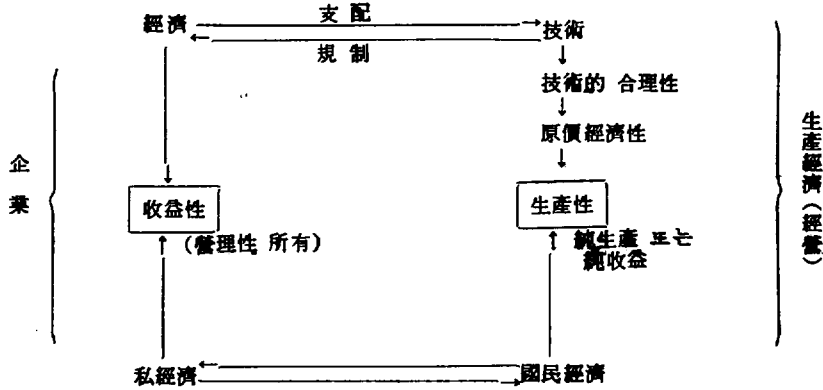
우리의 農業은 프랑스나 西獨의 小家族經營(small-scale family farm)에 比하면 역시 過小農(peasant farm)의 性格에 가깝고 經營主는 管理者로서의 責任이나 經營管理的 機能을 발휘할 만큼의 余地는 없었다. 달리 표현하면 企業的 利潤을 目的으로 하는 企業經營은 물론 經營純收益을 追求하는 family farm 또는 viable farm(自立農家)조차 두렵지 못하다. 그러면서 經濟成長에 따라 國民의 生活水準이 上昇하고 農產物의 消費構造가 크게 變化하면서 商業的 農業에의 轉換이 急速하게 進展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구체적으로는 農業經營의 集約化를 위한 作目 및 技術選擇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끔 되어 그 담당자로서의 經營者役割이 重視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農業經營의 發展에 따라 生産技術보다도 經營技術向上이 不可缺하게 되었으며 우선 農業經營의 확립이 요청되고 있다. 또한 勞動力이 가장 중요한 要素로 되면서는 經營管理와 經營組織을 基本으로 하는 새로운 經營管理原則이 問題 될 것이며 필연적으로 經營規模와 關聯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分業社會에서 農業經營으로서의 確立—바꾸어 말하면 家計와 分離된 農業生産部門의 設定—은 基本的으로 農業者의 企業者 理念確立, 合理的인 經濟活動에 의한 農業經營의 운영, 농업기술의 고도화, 영농종사자의 質的向上, 就業機會의 自己創出, 職能組織上的 合理化등에서 接近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는 農業經營의 確立—近代化 問題를 현재 職能未分化的 家族經營에서 一部の 職能을 分離, 集積하는 方向을 農業經營이란 무엇인가를 밝히는 과정에서 찾아 보기로 한다. 金澤夏樹教授는 農業經營을 社會經濟的 側面(國民經濟的)과 私經濟的 側面과의 二重性的의 統一 即 經營間 競爭의 尺度가 되는 生産力을 追求하는 經營의 技術的 單位로서의 側面과 分配되는 所得=私經濟的 收益을 追求하는 經濟單位로서의 側面과의 統一이라는 관점

에서 파악하려 하고 있다. 28) (圖2참조)

〈圖 2〉



以上과 같은 二重性的 把握을 高橋正郎氏는 表現을 바꾸어 經營의 한 측면인 技術單位로서의 經營, 이를 담당하는 「機能單位로서의 經營」과 이에 對置되는 다른 側面인 私經濟單位로서의 經營을 「經濟單位로서의 經營」으로 파악 二側面의 主体的 統一過程을 本來意味로서의 經營으로 理解하고 있다. 그러면서 前者를 보다 廣義로 받아들여 生産, 加工, 貯藏, 販賣라는 經營職能과 計劃, 組織, 指導, 調整이라는 management機能을 포괄하는 單位로 하고 있으며 後者는 私의利潤, 農業經營에서 말하자면 所得이 分配되는 單位, 財務單位, 經濟計算單位로서의 經營을 가리키고 있어 一般企業經營에서는 個別資本單位, 農業經營에서는 土地, 勞動, 資本을 主体的으로 投入하는 家族經營單位가 바로 「經濟單位로서의 經營」인 것이다. 29)

그런데 自作農은 經營中에 management, 勞動, 資本, 土地所有등 經營一體的 機能을 統合하여 即 上記 二重性的 經營體系가 家族農業中心으로 自己完結性을 維持해 왔지만 最近 農業內 外의 環境變化에 따라(例, 機械化, 施設등 機械的 技術의 導入, 農協中心의 共販體制 強化등) 分化의 過程(自己完結性의 一部 상실)을 밟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家族經營에서 담당해 온 「機能單位로서의 經營」機能이 營農機械化示範園地, 主產地造成, 營農園地, 複集團栽培園地, 農協의 系統出荷 擴大...등 組織的 營農活動集團에서 담당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零細個別 經營에서 달성키 어려운 分業과 協業의 體系를 실현하는 한 방법으로써 「經濟單位로서의 經營」機能은 家族農業이 담당, 유지하고 「機能單位로서의 經營」—生産, 加工, 저장

28) ① 金澤夏樹：農業經營學의 基礎理論, 時潮社, 1959.

② 上 同：農業經營學의 體系(農業經營學講座 1), 地球社, 1980. p. 39.

③ 磯邊秀俊教授도 農業經營：善賢堂, 1973.에서 農業經營을 經濟와 技術의 相互交涉, 私經濟와 國民經濟의 相互交涉의 場이라는 二重性的 統一로 정리하고 있다.

29) 吉田寬一編：農業의 企業形態(農業經營學講座 2), 地球社, 1979, pp. 226-232.

販賣의 諸職能과 이를 遂行하기 위한 計劃, 組織, 指導, 調整이라는 management 機能을 地域 農業을 單位로 하여 實現하는 農業生産組織의 한 방향을 提示해 볼 수 있다.

IV 農業生産組織의 類型

IV-1. 農業生産組織의 概念

農業生産組織 혹은 協同의 營農은 元來 多元의 構造를 갖고 있어 한마디로 概念을 定立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일단 概念을 찾아보기로 한다.

日本農林省³⁰⁾는 農業生産組織(Cooperative groups for agricultural production)이란 「複數(2戶以上)의 農家가 農業生産過程에 있어서 一部 또는 全部에 대하여 共同化(協業化)에 관한 協定下에 結合하고 있는 生産集團 및 農業經營 또는 農作物을 組織적으로 受託하는 組織의 總稱이다」라 定義하고 있으며 한편 OECD³¹⁾는 Group Farming이란 Report에서 集團營農 또는 營農集團(Group Farming, Agriculture de Groupe)이란 「若干의 農場이 土地를 포함한 投入의 共同管理와 共同作業(joint management and operation)을 위하여 結合하는 構造이다」라고 하고 있어 營農集團 또는 農業集團은 바로 Group Farming, Agriculture de Groupe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며 Group Farming을 協業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있다.³²⁾ 이러한 協業을 「營農作業들에 대한 集團行動을 組織化하는 公式의 體系」라고 적절히 정의한 바 있다.³³⁾

Barnard는 組織을 「2人 以上の 사람들의 意識적으로 調整된 活動 및 諸力의 體系」라 한 바 있다. 이를 農業生産組織에 적용하여 보면 生産組織이란 「生産過程에 있어서의 共通의 目的을 달성하려는 農家間의 合目的的 結合關係」라 規定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 간단히는 「生産

30) 日本農林省：農業生産組織報告書, 1976年, p. 5.

31) OECD: Group Farming, 1971, p. 8.

32) Edward Reed: Organization Issue in Group Farming in South Korea의 논문을 번역한 李鎬澈教授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筆者와의 論議에 따라 Group Farming을 協業으로 번역하고 있으며...그물영농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있지만 譯著(李鎬澈)의 생각으로는 비록 이러한 論議가 농업발전 이론으로 등장한 것은 최근일이며 그 적용범위가 다소 새롭다 하더라도 이는 결코 1960年이래 우리 농업경제학계에서 제기 되어온 協業論議와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아시아 諸國의 경우 그러한 形態의 營農은 이미 오래전부터 “協業”이란 이름으로 불려져 왔을 뿐만 아니라 同一한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用語의 併用은 오히려 혼란만을 더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 부연하고 있다. : 창작과 비평, 14권 4호(1979, 겨울), p. 168.

33) 아시아에서의 農業協業化에 관한 경험 및 가능성에 대한 國際會議(A. D. C의 후원으로 1977年 8月 싱가포르에서 개최) : 이 회의 보고서는 John Wang과 Ed Reed에 의하여 A/D/C Teaching & Research Forum(No. 17, 1978. 7)으로 발간되었음. 창작과 비평, 14권4호에서 인용.

組織은 어떤 共通의 目的을 가진 農業者의 集團이라 협의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以上 諸概念에서 共通되는 것을 미루어보아 「2人 以上の 協業에 의한 行動體系를 가지고 組織하는 營農活動을 生産組織」이라 한다면 일단 用語의 통일상 필자는 農業生産組織=營農集團으로 파악하기로 한다.³⁴⁾

사실 농업에 있어서의 組織形成은 아득히 먼 自然에 依存하여 살던 歷史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가장 기본적인 單位로서의 家族에 의한 組織을 제외하면 農家集團으로서의 마을(部落)은 農業을 중심으로 하는 生産活動의 協業을 위시하여 生活行動 혹은 政治的 活動에 組織의 對應하여 온 長期永續的인 組織이기도 하다.

農業生産組織도 一般理論에 비추어 보면 항상 外部環境條件의 變化에 對應하여 組織形成의 目的을 가지고 그 目的達成에 贊同하는 農業者의 參加를 얻어 參加者의 協業에 따라 組織活動을 계속하는 것이 바로 생산조직인 것이다. 組織活動을 存續發展시키기 위해서는 構成員의 協業意欲을 높여줄 수 있는 外部環境에 적합한 目的을 가지며 또한 구성원이 조직에 남을 수 있는 誘因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외부환경으로부터의 요구를 정확하게 항상 파악하고 組織의 內部均衡을 유지하는 것은 농업생산조직상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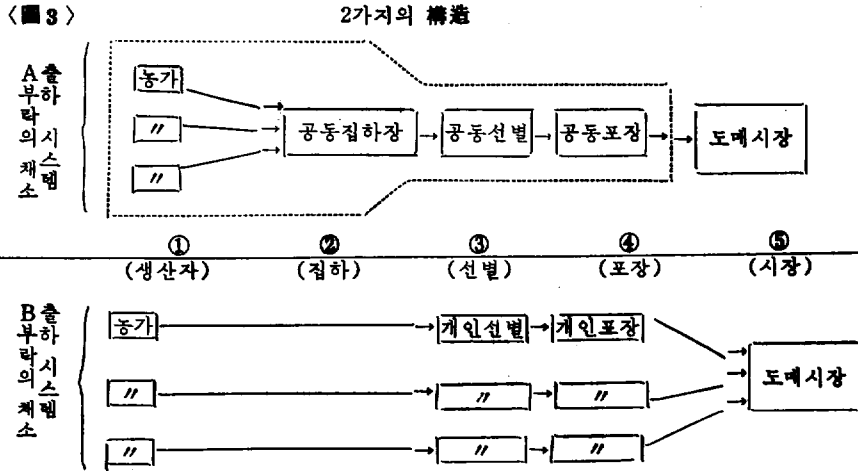
또한 農業基本法에서는 自立經營의 育성과 協業의 助長을 서로 다른 농가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協業의 助長 對象農家は 自立經營에 도달할 수 없는 農家였음) 併行하는 두가지 政策方向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農業經營이 自立經營으로 成立되기 위해서는 그 成立條件으로써 生産組織을 필요 하겠끔 되었으며 또한 생산조직은 構成員 農家が 自立經營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실 個別農家の 經營目標은 農業純收益을 最大로 하는데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一定의 純收益을 얻는데 필요한 費用이 最小가 되겠끔 生産諸要素의 最適結合方式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와같은 選擇은 生産물이 판매되는 市場構造, 生産技術段階 및 生産諸要素의 投入價格을 여건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들 與件變化에 最近 個別農家만으로 自己完結的인 形態로의 적응이 곤란한 경우에는 生産要素의 投入方式을 部分 내지 全体를 生産組織에 委讓하므로써 처음부터 生産諸要素의 최적 결합방식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個別經營의 主体를 維持하면서 經營規模의 擴大 또는 經營機能의 강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生産組織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하나의 例로서 產出荷 system을 A部落은 出荷組合-生産組織이 담당하고 B부락은 個人別 體系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를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圖3)

34) 生産組織이라는 用語形式에 대해서는

西村甲-「農業の 生産組織」, 農業構造改善, 1970, 10.

伊東勇夫:「稻作生産者組織の展開」, 農業構造改革下における稻作の構造, 東大出版會. 등에서 취급되어져 있다.



IV-2. 農業生産組織의 類型 및 機能

(1) 現象的인 類型과 機能

生産組織이란 小農이 生産力競爭에서 上向展開가 곤란한 條件下에 있는 다른 小經營과 몇몇 生産要素를 協業으로 利用하기 위해 발생을 본것인 데 生産組織에는 여러가지 形態, 發生段階가 있으며 多様な 內容과 性格을 갖고 있다. 生産組織의 諸形態는 農業生産力, 技術段階, 行政施策 등의 배경과 농민층의 대응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日本 農林省이 1976年 「農業生産組織調査」에서 나타난 類型을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로 調査上에 나타난 統計數値도 그대로 밝히기로 한다)³⁵⁾ 本 調査에서는 販賣組織, 請負會社에 의한 것, 집단재배조직 이외에서의 手勞動에 의한 共同作業 土地改良 등 一時的인 것, 물(水)관리만을 협정한 집단재배조직, 農家間의 農作業受託(相對)에 의한 것, 농기계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것(空中防除會社등)등은 例外로 하고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35) 生産組織의 形態分類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資料에 나타나고 있다.

農林省 農業技術研究所: 「農業生産組織의 展開と經營- 討論의 總括-」, 1968年.

森入島隆: 「稻集團의 形態別 形成條件と 整備의 內容」, 1970年.

〈表 3〉 類型別 生產組織

		大 分 類	中 分 類	小 分 類	組 織 數
農 業 生 產 組 織	耕 種 · 양 잠 에 관 한 생 산 조 직	共同利用組織	屬地的 共同利用型		1,365
			農業部落 運營型		1,851
			任意組合 등 운영형		14,981
			특정 group 운영형		1,950
		集團栽培 組織	栽培 協定型		1,033
			共同 作業型		83
			共同 利用型		4,301
受託組織	農業經營受託(全面 農作業 受託 포함)	農協型	93		
		農業生產法人 任意組合 특정 group 농업service업		219	
	農作業 受託	農協型	1,839		
		農業生產 法人	168		
		任意組合	1,763		
		특정 group	476		
		농업service업	14		
畜 產 生 產 組 織		土地 공동이용 조직	1,444		
		기계 "	1,662		
		시설 "	430		
		번식 · 育成센터	572		
協業經營組織		全面協業	694		
		部門 "	3,112		
계		—	—	38,150	

農林省：農業生產組織 調查報告書, 1977年.

以上 現象的 分類를 一般的 區分과 聯關지워 보면 다음과 같다.

一般의인 區分

- ① 재배, 기술협경조직
- ② 공동 작업조직
- ③ 공동 이용조직
- ④ 受託組織(技術信託)
- ⑤ 請負耕作(全面信託)
- ⑥ 協業經營

農林省 區分

「집 단재배조직」

「受託組織」

「협업경영」

이와같은 分類는 이미 和田照男氏³⁶⁾에 의하여 ① 農協, 協業經營, 生産法人, 서비스業을 포함시키고 있는 문제, ② 受託組織位置設定의 不明確性(受託은 業務의 內容이어서 共同利用과 같은 組織性格은 아님), ③ 生産過程의 定義問題(rice center는 生産에 포함시키고 選果場은 불포함)등이 指摘되고 있으며 吉田忠教授도 ① 組織主体의 分類基準이 不正確한 점(生産조직의 정의에서 請負會社를 제외시키면서 受託組織의 主体에 서비스業을 포함시키는 것), ② 部門으로서 畜産만을 大分類로 하는 이유의 不明등을 문제점으로 提起하고 있다.³⁷⁾ 어떠한 生産組織은 形態의 分類, 發展段階規定 등에 論議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生産組織은 그 內容에 따라 個別主体에서 共同主体까지의 광범한데 共同이 主体가 되는 경우는 協業經營이 된다. 그러므로 主体가 個別로 남는 ①~④와 ⑤⑥은 區別되어야 하며 生産物處分이 個別로 歸屬되는 ①~④를 協業組織으로 하여 ⑥과는 區別되며 狹義의 生産組織은 協業組織인 ①~④를 指稱하게 된다. 그러면 區分에 따른 各 形態의 특징을 요약해 보기로 한다.³⁸⁾

1) 集團栽培組織(Cooperative groups for crops growing)

栽培協定만 하던가 또는 이에 關聯하는 共同作業, 機械, 施設의 共同利用을 행하는 農家集團을 말한다. 또한 部分農作業을 組織하여 달리 委託하여도 여기에 속한다. 栽培協定이란 複數의 地緣的 生産農家が 재배품종의 통일을 根幹으로 하여 파종시기, 시비, 물관리, 방제시기, 수확시기 등에 관하여 관계 농가간의 調整을 통일적으로 하기 위한 技術協定을 말한다.(韓國의 벼 集團栽培가 여기에 속한다) 集團栽培는 內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가지 type로 細分할 수 있다. ① 栽培協定型: 品種의 統一을 根幹으로 하여 栽培協定만을 행하는 組織 ② 共同作業型(①+共同作業) ③ 共同利用型(①+②+共同利用) ④ 部分作業委託型(①②③型을 병행하는 組織으로 農業生産過程의 部分作業을 組織하여 달리 委託(技術信託型)하는 組織

2) 共同利用組織(Cooperative groups for joint use of agricultural machines and equipment)

複數의 農家が 기계, 시설이용에 대한 규정에 따라 結合하고 있는 組織을 말한다. 이 때 個別經營의 意志를 規制하는 합의는 모두 여기서 말하는 規定으로 취급한다. 共同利用이란 組織이 共同으로 구입 혹은 借入한 기계, 시설을 공동작업으로 공동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共同所有, 個別利用은 原則으로 이 共同利用組織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36) 和田照男:「農業生産組織의 企業形態論的 接近」, 日本農業經營研究會 研究報告, 1979.

37) 吉田忠:「農業經營と 生産組織」, 現代日本の農業經營所收, 富民協會, 1980年, p. 202.

38) ① 全國農業構造改善協會: 農業構造改善事業 ユンサルクト・ハンドブッカー生産組織編, 1976, pp. 1-5.

② 久守藤男:「農業生産組織의 組織論的 考察」, 近代農學論集所收, 1980, pp. 177-195.

③ 大內力, 外編: 日本의 農業, 東大出版會, 1974, pp. 210-218.

3) 共同作業組織(Cooperative groups for joint labor)

複數의 農家 혹은 마을 등의 地域集團이 벼 移秧 등의 手作業을 공동으로 하는 組織이다. 기계, 시설과 結合된 共同作業組織은 제외된다.

4) 受託組織(Cooperative groups for for contract farming)

農業經營, 全面作業 또는 部分作業을 受託하여 一定의 受託料를 收受하는 조직을 말한다. 受託組織에는 마을 등 行政機關, 農協, 任意組合, 特定group 등의 農家集團, 農業生產法人 및 주식회사 등이 受託事業의 主体가 되어 있는 외에 非農家를 構成員으로 하는 농업서비스업을 포함시키고 있다. 단 空中防禦會社는 제외

5) 畜産生産組織(Cooperative groups for livestock production)

畜産은 耕種 혹은 養蠶과는 성격적으로 다른 面이 많기 때문에 특히 畜産生産조직으로써 分離하여 이를 土地共同利用, 機械, 施設의 共同利用 및 번식, 육성사업을 행하는 조직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畜産生産조직이란 複數(2戶以上)의 家畜을 사육하는 世帯, 혹은 목초재배를 하는 世帯가 採草地 및 放牧場 등의 土地共同利用, 기계, 시설의 공동이용을 할 때 번식사업 및 공동 육성사업을 행하는 行政機關, 農協, 任意組合 등의 총칭이다.

(2) 投入主体의 營農集團에의 移行程度에 따른 類型—基本類型

生産過程에 投入되는 生産要素 중에서 어떠한 生産要素의 投入主体가 生産組織에 移行하고 어떠한 要素가 종전과 같이 個別農家를 主体로하여 投入되는 가에 따라 몇가지 類型을 나누어 볼 수 있다.³⁹⁾ 生産諸要素는 所得分配, 즉 賃金, 地代, 利子 및 利潤의 歸屬先으로써 勞動, 土地, 資本 및 企業者的 要素(Enterperneurship)로 분류되지만 여기서는 말하자면 生産力의 觀點에서 勞動(技能勞動, 單純勞動), 勞動手段(機械, 機具, 施設 등), 勞動對象(農作物, 家畜, 種苗 및 肥料, 飼料), 經營管理機能(土地利用方式 내지 作付順序의 決定, 農作物, 家畜의 재배관리 및 사양관리 방식의 결정, 農作物時期 및 方法의 決定) 등 4가지로 分類하기로 한다.

〈表 4〉 生産組織化의 基礎類型

類 型	指 標	經營管理機能	勞 動 入	勞動手段投入	勞動對象投入	(참고) 生産物의 歸屬
協業組織	管理協定	○	×	×	×	×
	共同作業	×	○	×	×	×
	共同利用	×	×	○	×	×
協業經營 = 共同經營		○	○	○	○	○

註: ① 여기에서의 「經營管理 機能」의 내용은 재배(사육)관리 방식의 결정임.

② 綿谷勉夫: 農業生産組織論, 農材統計協會, p. 168에서 작성.

39) 綿谷勉夫編, 「營農集團의 發展過程에 關する 研究 II」, (農林省應用研究費 結果報告), 1978, pp. 1-3.

이때 土地는 農作業이 遂行되는 장소로서는 노동수단임과 동시에 農作物生育에 필요한 영양을 축적하고 공급하는 측면에서는 勞動對象이 되며 灌溉水는 土地에 포함된다. 上記 <表4>는 이상과 같은 勞動, 勞動手段, 勞動對象 및 經營管理機能으로 分類된 生産요소 중에서 어떤 要素가 營農集團을 主体로 하여 投入되고 있는가?(○表) 또 어떤 要素가 個別農家를 主体로 하여 投入되고 있는가?(×)에 따라 生産組織化의 基礎類型을 네가지로 區分해 본 것이다.

上記 綿谷教授의 基礎類型과 現象的 分類와 比較하면(상세한 비교는 無意味하다) 즉 무엇보다도 중요한 概念인 個別主体가 個別經營에서 계속 主体性을 갖느냐의 여부에 따라 또는 生産物 歸屬이 個別主体이나 共同主体이나 라는 觀點에서 二大別하면 協業組織⁴⁰⁾과 協業經營⁴¹⁾으로 類型化 할 수 있을 것이며 그외로써 受託組織⁴²⁾이 더 追加되고 있다. 그러므로 農業生産組織의 基本類型은 ① 協業組織(共同作業組織, 共同利用組織, 集團栽培組織) ② 協業經營組織(部門協業經營, 全面協業經營) ③ 受託組織으로 類型化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協業經營 類型은 勞動, 勞動手段, 經營管理機能 뿐만 아니라 勞動對象의 投入主体 까지도 營農集團에 移行되는 것이며 生産物의 歸屬先도 個別農家가 아니라 營農集團이 된다. 이러한 協業經營을 廣義의 生産組織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生産이라는 用語는 從來 狹義로 특히 농업에 있어서는 物的生産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왔지만 最近의 經濟學에서는 生産物加工 과정은 물론, 生産物의 販賣, 資材의 購買 및 貯藏등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生産이라 廣義로 보는 것이 일반적 인 것이다. 그러므로 協業經營까지 포함할때 廣義의 生産組織, 協業組織만을 狹義의 生産組織이라 區分해 볼 수도 있다. 協業經營과 協業組織의 문제를 이러한 立場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40) 協業組織이란 우선 간단히 설명하면 농가의 생산행위중 일부 또는 대부분을 協業化하는 組織인데 이 組織自体는 獨自의 經營체를 형성하지 않은 것을 총칭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는 本文에서도 밝혀 있지만 달리 표현된 共同利用, 共同作業, 部分共同生産(蠶飼育, 育苗, 育雛등, 특정 생산의 특정 단계를 공동으로 하는 것 까지로 포함시킨다.), 生産協定등이 포함된다. 한편 協業組織을 狹義의 生産組織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41) 協業經營이란 2戶이상의 農家가 共同出資하여 一經營部門 또는 2이상의 部門에 대하여 生産에서 販賣, 收支決算 收益分配까지를 一貫하여 共同으로 행하고 獨立經營체를 形成한다: 磯邊秀俊, 前掲書, p. 222.

42) 受託組織이란 本文에서도 약간 설명이 있었지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受託類型으로는 우선 ① 農業經營受託과 ② 農作業 受託으로 나눌 수 있으며 ①은 農業經營의 全部 또는 1내지 數部門의 經營을 受託하는 것을 말하고 어떤 部門의 農作業 모두를 受託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小類型으로는 i) 農協型: 農協이 協同組合法에 입각한 受託事業 ii) 實際는 一般小作關係와 같은 것으로 推定되는 形態인데 受託者가 自身의 生産手段을 사용하여 생산하고 收穫物은 受託者側의 것으로 하여 地代로서 미리 결정된 一定의 금액 또는 수확물을 委託者에 支拂하는 形態와(소위 위장 小作 형태임) iii) 委託者는 作物栽培의 一切를 受託者에 맡겨서 생산케 한 후 수확물은 전부 위탁자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는 대신 受託者는 一定의 耕作料를 받는 形態의 것이다.(일종의 請負耕作이라 볼 수 있다.)

(3) 協業組織과 協業經營

協業經營이 對象으로 하는 生産過程은 앞서 본바와 같이 廣義의 生産이 어떤한 部門(例 部門 協業)의 全生産과정 또는 이에 가까운 대부분의 基幹的 生産過程執行이 그 內容을 이루는데 대하여 協業組織은 分解된 個個의 部分過程 即 機械나 施設利用, 各種의 農作業過程, 生産物加工過程, 販賣, 購買등 各種의 流通過程의 各個別 過程을 內容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生産部門 또는 生産過程을 協業적으로 할 경우 生産過程 전부를 協業經營形態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全生産過程을 個個의 部分過程으로 나누어(分解하여) 協業組織形態로 하는 것도 가능함은 물론이다. 예를 들면 果樹園協業인 경우 果物生産의 全過程을 母體農家로부터 分離 獨立시켜 協業經營을 創設하여—적어도 計理上에 있어서는 純收益을 母體經濟農家に 出資, 出役의 質量에 따라 分配한다는 協業經營의 協業方式을 택하여—특별히 과수원협업경영을 하는 경우와 獨立의 과수원 경영체를 구성하지 않고 다만 과수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部分過程 또는 作業中 協同으로 하기 쉬운, 그러면서 協同을 통하여 規模擴大가 가능하고 機能 및 能率을 가장 향상시킬 수 있는 部分만을 全生産過程에서 분해 유지시켜 各各의 適正規模協業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나머지 부분은 종전과 같이 個別經營에 남으며 協同에 들어간 총비용은 各個別農家가 分擔하는 協業方式—協業組織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協業經營과 協業組織中 어느 쪽이 더 우월성을 갖느냐의 優劣問題는 여기서 論外로 하고 다만 個人主義의 自由競爭이 支配的인 現狀을 감안한다면 協業經營은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선은 協業組織—狹義의 生産組織은 現實性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前提에서 協業組織의 長點을 찾아보기로 한다. 生産過程中 耕耘過程, 病蟲害防除과정, 販賣과정, 購買과정등 어느 과정이나 斷片的으로 分解될 수 있는 過程이어서 이들중 한 부분을 協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서 每作業이 適正規模에 도달 또는 協同規模를 확대하여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이다. 協동규모 확대는 全部落 또는 一定地域까지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例 病蟲害防除등에서) 새삼스럽게 말할 것도 없이 農業에 있어서 協業을 필요로 하는 理由는 經營規模가 너무 영세하여 오늘날 발전된 技術單位에 또는 市場條件에 對應이 어렵기 때문에 規模擴大의 手段으로서 要請되어지고 있다. 사실 機械化가 가장 발전된 美國에 있어서도 大規模를 適正規模로 하는 各種 農作業에 대해서는 協業組織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⁴³⁾ 즉 作業執行을 請負맡을 수 있는 大型機械施設을 갖춘 專門營利會社가 出現하고 있는데 그 例를 보면 水利는 水利會社에, 耕耘은 耕耘會社에 또 수확은 수확회사에 담당시켜 경영자는 이들 경영회사에 전화만 하면 바라는 作業이 이루어지고

43) 西獨의 Maschinenring(農業機械銀行)도 協業組織의 일종으로서 農業機械의 高度化 段階에서 效率的 利用方法 體系로 발전을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內容은 拙稿: 西獨農業機械銀行에 대한 考察: 國際食糧農業. FAO 한국협회, 1978. 2. 및 農協中央會: 「농업기계 조합에 대한 고찰」, 농협 조사월보, 1980. 10에서 참고 할 것.

料金만 지불하면 끝나는 극히 企業的 利用 system을 우리는 볼 수 있다.

(4) 發展型 (基本類型에서의)

〈表 5〉 生産組織의 發展類型

類 型	指 標	經營管理 機 能	勞 動 投 入		勞働手段 投 入	勞働對 象投入	農地의 投 入	(참고) 生産物의 歸屬
			全農家出役	家長中心				
集團 栽培		○	○	—	○	×	×	×
集團의 作業受託		×	—	○	○	×	×	×
集團의 經營受託		○	—	○	○	○	○	
分割制 協業農場		○		○	○	×	○	×
生産團地	서비스센터	—		○	○	—	—	—
	農家經營	○		×	×	×	×	×

〈註〉: ① ○, ×表는 表4와 같은 뜻임. —表는 해당없음.
 ② 여기서의 「경영관리기능」 내용은 재배(사육)관리방식의 결정임.
 ③ 「生産團地」의 「서비스센터」 사업내용은 여기에서는 기계시설에 의한 작업서비스를想定한다. 仔畜의 生産育成 서비스의 경우는 集團的 經營受託의 指標로 되어야 할 것임. 綿谷越夫, 前掲書에서 인용.

現實에 보다 接近시키기 위하여 區分된 것이 發展型인데 그 內容을 간단히 요약하기로 한다.⁴⁴⁾ 類型區分의 指標는 〈表4〉와 마찬가지로 生産要素中 어떤 요소의 투입주체가 集團에 移行되는가(○表) 어떤 요소가 個別農家에 남는가(×表)이며 다만 다른점은 첫째 勞働投入란을 全農家出役과 家長中心(專從者)으로 나누었다. 그 이유는 基礎類型에서 共同作業이나 協業經營에서는 노동투입이 集團을 主体로 하고 있지만 그 所要勞動力은 參加 全農家로부터의 出役을 전제로 한것인데 一部農家가 出役을 하지 않고 다만 中心從事者 出役方式으로 변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었고 둘째는 勞働對象投入 속에 포함시켰던 農地投入을 여기서는 獨立시켰다. (이러한 類型을 發展類型이라 하고 있음) 또한 새롭게 追加, 變形된 것은 分割制 協業農場인데 이것은 管理協定 및 共同作業과 共同利用의 結合이지만 특징점은 〈表4〉에서 勞働對象속에 포함되었던 農地가 獨立하여 그 投入란을 集團主体下에서 協業化되고 있다, 이에 대한 內容을 좀 더 살펴 보면 生産組織化의 研究者로 알려진 西獨의 O. Schiller박사는 이 類型을 「協業經營의 個人主義的 type내지 協業化 方向에 입각한 個別經營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라 하고 있다.⁴⁵⁾ 따라서 이 類型은 協業經營의 長點과 個別經營의 長點을 함께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分割制 協業農場은 divided cooperative Farm의 直譯이며 內容은 集團的 作業受託과 管理協定등이 결부되고 있지만 生産基盤인 耕地의 所有 내지 借入을 사실상 協業化하므로써 單一農場(혹은

44) 綿谷越夫編, 前掲書, pp. 11-12.

45) O. Schiller: Cooperation in Farming Operation—Some example in Germany—, Year Book Agricultural Cooperation, 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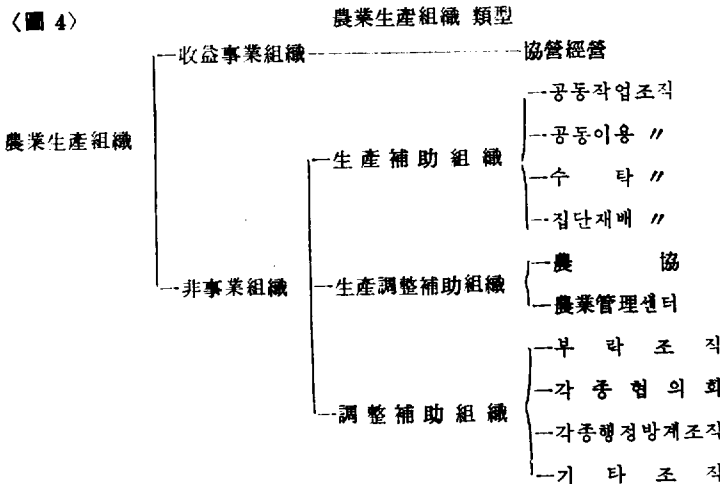
飼育場) 方式을 실현하는 점에 獨自의 특징이 있다. 單一農場이라 하여도 勞動對象에 대해서는 個別農家の 持分이 확실하고 상당한 部分의 作業도 個別的이므로 協業經營과는 本質적으로 다르지만 經營管理의 全機能은 거의 協業經營에 가깝고 있다. 특징은 첫째 生産過程中에서 技術적으로 大規模生産化하는 件이 좋은 部門, 一例 果樹인 경우 病虫害防除, 灌排水, 一에는 高度의 勞動手段을 導入 이를 中心으로 한 集團的 作業受託方式을 택하며 또한 그 效率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集團이 主体가 되어 單一 大農場과 같이 土地基盤을 새롭게 造成(耕地整理方式)하고 여기에 固定施設이나 永年生作物 植栽方式을 單一 農場方式으로 整備統一한다. 둘째 共通된 品種으로 과수원을 구성하나 樹列에 따라 持分으로 所有하여 재배관리의 手作業部分은 個別로 이루어진다. 즉 生産과정의 각종 作業은 大規模生産의 技術革新을 살릴 수 있는 분야는 協業化하고 協業化하므로써 結果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有機도가 높은 作業一例, 정지전정, 유인, 摘果등一, 協業化한다 하여도 能率이 올라가지 않은 手作業一例, 배(과수)의 수확一은 個別經營에 맡겨서 各 農家가 個別로 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도 協業化된 關聯作業部門의 能率을 확보하기 위하여 集團의 指導下에 재배 내지 사육협정을 맺게 되고 作業內容이 高位標準化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發展型中的 生産團地類型을 요약하면 여기에 속하는 일반농가의 經營은 管理協定下에 있지만 이에 대한 service senter 사업은 기계시설에 의한 作業서비스일 때는 集團的 作業受託方式이고 또 어린家畜의 번식육성 서비스는 집단적 經營 수탁방식으로 운영된다.

(5) 기 타

表現上에는 약간씩 差異點을 보이지만 基本型으로서의 協業組織一狹義의 生産組織, 協業經營一廣義의 生産組織의 범위안에 포괄되나 몇가지의 類型을 要約해보면

1) 個人과 組織과의 관계에 따라



個人과 組織과의 關係에서 볼때 事業체로써 收益을 目的으로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組織체가 獨立된 收益을 目的으로 하여 活動하는 組織과 組織自体는 收益을 目的으로 하지 않고 個別的 農業經營活動을 補助 혹은 援助하여 個別經營의 收益活動을 助長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組織으로 나눌 수 있다.⁴⁶⁾(圖4 참조)

이상의 類型區分은 協業組織을 生産補助組織, 生産調整組織으로 細分하면서 여기에 부락단 위의 諸組織을 調整補助조직으로 포괄시키고 있어 生産組織이 部落單位까지 또는 그 이상의 地域範圍로 확대될 때는 이러한 調整조직이 필요될 것이다.

2) 協業化의 정도에 따라⁴⁷⁾

협업화의 정도에 따라 部分的, 個別的 生産組織(營農集團), 全面的 또는 綜合的 生産組織, 結合的 生産組織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全面的 및 結合的 生産組織을 集約的 生産組織이라 지칭할 수 있다. 또한 生産組織을 soft營農集團과 hard營農集團으로 나누어 前者를 知識, 技術, 情報의 組織化인 것으로 벼 집단재배, 西獨의 農業機械銀行(Maschinen ring), Kornlingen一分業的 經營 Chain 이 여기에 속한다. 西獨의 農機銀行은 銀行自体는 전혀 기계를 소유하지 않고 農機作業의 受委託을 manager가 알선 할 뿐이다.⁴⁸⁾

Kornlingen(arbeit steiligen Betriebskette)은 生産의 專門分化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가격폭락, 재해등 위험부담을 분산시켜 경영의 安定化를 기하려는 데서 생겨난 것이다. 이 형태는 專門化를 실현시키면서 多角化에 의한 위험분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본부담, 노동력의 낭비등을 제거시킬 수 있는데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농민한사람이 豚舍를 건설하는데 자금을 조달하면 다른 농민은 乳牛舍를 또는 繁殖豚舍에 투자를 하여 각각 소유하고 있던(앞으로 導入도 마찬가지) 가축을 계약에 따라 상대방에 위탁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각 농가는 폐지 또는 적소경영을 專門特化할 수 있다. 물론 소유권은 그전 그대로이며 농민은 多種類의 가축소유를 유지하게 된다. 收支計算은 우선 受託農家가 위탁한 가축을 포함한 全飼育頭數에 대하여 소정의 勞賃所得과 經營者보수를 확보하고 여타 가축소유자는 위탁가축두수(持分)에 해당하는 利益配當을 받게 되고 이때 생산 또는 가격변동에 의한 損失은 分擔한다. 그래서 농가는 여러가지 가축을 小數씩 個別로 소유하면서 이 분업적 경영 Chain을 통하여 사육의 專門化와 大規模化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⁴⁹⁾

이에 대하여 hard營農集團(生産組織)은 集團이 기계 또는 시설, 경우에 따라서는 土地를

46) 福田 念: 農業生産組織의 新展開, 1979, p. 21.

47) 小創武一編: 集團營農의 展開, 御茶の水, 1976, p. 6.

48) 姜景禧: 西獨 農業機械銀行에 대한 고찰, 國際食糧農業, FAO한국협회, 1972. 2 참조바람.

49) E. A. Friedrich: Kornlingen-Eim Modell Moderner Landwirtschaft, 1977 (松浦制明譯, 「新しい農業のモデルの西獨の農業經營チェーン」).

保有하여 이를 中心으로 營農의 協業化 生産組織化를 하는 경우인데 대개는 日本의 協業化가 여기에 속하며 機械의 有効利用에서도 共同所有, 共同利用形態를 취하는 機械共同利用組合(例 프랑스의 CUMA)^{50, 51)}은 hard生産組織에 속한다.

50) 프랑스는 1960年 農業基本法인 農業의 方向設定에 관한 法律(Loi d' Orientation agricole)이 제정 공포 되었고 그후 62年「補完法」, 1980年 新農業基本法이 발표되면서 그동안 構造改善政策을 펴왔는데 이중 規模擴大에 대해서는 個別經營뿐만 아니라 經營의 集團의 擴大로써 L'agriculture de group(營農集團, 生産組織)이라는 組合形態에의 集團化가 推進되어 各種의 特別法을 정비, 지원해 주고 있다. 그 種類와 특징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① GAEC(農業經營共同集團 또는 共同經營農業集團 Groupement Agricole d' Exploitation en Commun) : 民社會社인 GAEC는 協業經營체로써 家族type 經營에서 集團形成이 되어 있어야 하며 구성원은 GAEC의 作業에 실제 참가해야 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으며 1980年 新農業基本法에서는 구성원이 10인 이상 초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부 2인만으로는 구성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약 600개소가 설립되어 있는데(1978年 현재) 구성원의 性格으로 보면 兄弟間이 1,800개소 기타 1,600개소이고 구성원의 數로는 2名인 것이 3,750개소, 3名인 것 1,500, 4名인 것 450, 4名인 것이 250個所 등으로 되어 있다. 20여년전부터 발생, 발전을 보았지만 法制化는 1962年 되었다. : Madomiselle Josette Buchou : L'Agriculture de Groupe en France. H. Nallet, C. Roger, M. C. Vignaud : Les Groupement Agricoles d'exploitation en Commun, 1971. 참조

② GFA(農地管理集團) Groupement Foncier Agricole) : GFA는 규모 확대책의 일환으로서 農地所有集團(GAF)가 法制化 되었다가 1970年 GFA로 改造되었는데 農地를 所有하고 있는 者들의 協業集團인데 一定期(최소 9年間은 共同所有와 管理下에 둔다.) 所有地를 出資하여 공동관리하고 있으며 원래는 現物出資者만이 구성원이 될 수 있었지만 그 제한이 해제되어 金錢出資도 인정하고 있다.(금전출자가 자본의 30%를 넘으면 반드시 借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책효과로서는 非農業資金의 誘인과 貸借의 促進등이 기대되고 있다.(현재 약 1,500個소가 있음) : Ph. Maini : [Les Agriculteurs et la Politigue en] Economie Rurale, 1972, No.97. 참조

③ CUMA(農業機械施設 利用 協同組合 Cooperative d'Utilisation de Matériel Agricole) : 農業機械, 施設의 공동구입과 공동이용은 현재 광범위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CUMA는 1972年 農協定款에서 인정되고 있다. : La loi d' orientation agricole 15 ans a prés, II--La Politigue des structures, I. L'exploitation á Promouvoir, 2. L'exploitation á protéger, Chambres d' Agriculture, Janvier es Novembre, 1977. 참조

51) 地主中心體系인 스페인에도 1950年代 후반부터 中心農家가 社會經濟的 發展에 對應하기 위하여 集團(Groups)에 의한 農業協業經營이 出現, 發展되고 있는데 하나는 協同組合(Cooperativa-Cooperatives)이고 다른 하나는 신디케이트group(Grupo Sindical de Colonizacion-Syndical Groups of Colonization)이다. 프랑스에서와 마찬가지로 特定の 政策은 아니며 다만 農業構造를 變化시키기 위한 手段의 하나에 불과하다. 현재 9,805個소가 조직되어 있지만 稼動中인 것은 4,482個所이며 대부분이 신디케이트로 4,156이고 協동조합이 326個所이다. 조직성립은 協동조합이 7人, 신디케이트가 3人으로 성립되며 60%가 50才이상(남자)이며 신디케이트는 가입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收益은 內規에 의하여 自由로 分配된다. : Sr. D. Miguel Bueno : Group Farming in Spain, "Special Issue on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Joint Farming Land Tenure, 1980, 東京. 小創武一 : 「스파인의 農業と 共同經營」, 農業構造改善研究, No.91. 등에서 참조함

V 結 言

— 韓國에서의 發展可能性 —

(1) 우리나라의 경우 生産組織 (주로 共同作業)형태로는 공동관개, 품앗이, 두레같은 것이 옛부터 農村全域에 있어왔고

(2) 1960年代初 農林部內 「농업구조 개선심의회」가 發足되면서 전반적인 農業構造 改善問題를 提起 改善方向(協業形態)이 提示된 바 있으며, 이에따라 示範農場으로써 協業經營形態의 開拓農場이 전남광양의 백운산농장을 비롯 5個農場이 1962年 4月 일제히 設立된 바 있으나 실패한 事例가 있다. 실패한 理由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뚜렷한 것은 그당시 協業에 대한 概念定立이 안되어 있었고 開拓農場이라는, 거기에다 山岳地라는 惡條件이 前提되었으며 즐기찬 政策이 연속되지 못한데 基本要因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表 6〉

開拓農場의 概況

區 分	廣州農場	雲長山農場	白雲山農場	朴達農場	大里農場
1966年現在					
單位 { 金額: 千圓 面積: 町步					
設 置 年 月 日	63. 4. 1	63. 4. 10	61. 7	63. 4. 10	63. 4. 10
入 住 者 數 (名)	10	9	22	11	8
개간가능면적	150	35	184	24	34
보 조 액	2,365	1,406	3,022	3,840	2,287
農 場 所 有	公有地	國有地	國有 및 私有	公有	國有 및 公有
協 業 形 態	全面協業	全面協業	全面協業	全面協業	全面協業

註: 廣州農場은 1964年末 現在의 概況이며 개간가능면적은 농장의 총면적임.

資料: 農協中央會 調査部.

(3) 벼 集團栽培은 1960年代 後半에 새로운 多收穫 벼품종의 도입과 더불어 정부에 의해서 시작된 바 있고 이에대한 발전가능성은 크게 評價 되고 있다.(表7 참조)

4) 1968년부터 第1次 農漁民 所得增大 特別事業이 전개되면서 分散農政은 生産團地造成을⁵²⁾ 中心으로 한 地域爲主의 綜合地域開發農政으로 轉換된바 있으며 1972年末 食糧생산은 쌀

52) 主產地에 대한 概念은 拙稿 「감팔의 경영 개선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 논문집, 제10집, p. 653 참고바람.

〈表 7〉 연도별 벼 집단재배단지수, 면적, 참여 농가수

항 목	1968	1970	1972	1974	1976
벼집단지배단지수	500	22,896	22,045	28,293	51,396
면적(1,000ha)	206	300	187	399	528
(총담면적에 대한 %)	(0.2)	(23.6)	(14.9)	(31.0)	(40.9)
참여농가수(1,000호)	8.7	817	625	1,197	1,424
(총농가에 대한 %)	10.3	(32.9)	(25.5)	(50.3)	(61.0)

자료: 농촌진흥청.

이 27,481千石, 麥類가 12,736千石이었던 것이 1974년에는 30,867千石, 75년에는 32,424千石의 쌀을 생산하여 75년부터 쌀을 自給할 수 있는 단계에 까지 이르게 한 바 있다.(78년에 40,258千石을 생산함으로써 4,000단석대를 돌파하여 쌀에 대해서만은 한 때 自給線에 이룬 바 있었다) 여기에는 多收穫品種의 育種성공, 보급등 여러가지 주요인이 있지만, 農業團地造成, 새마을운동에 의한 協業營農등의 役割도 중요한 要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收益性和 市場性이 높은 經濟作目的 主產團地는 1966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農協이 主管한 作目班에 의해서 또는 營農特化團地造成事業등을 통해 協同生産 또는 集團栽培로 더욱 촉진된 바 있다.

5) 농촌노동력 부족문제가 심화되면서 自生的으로 農民들에 의하여 協業的 營農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營農作業團과 農事組合과 같은 것이 1979年~80년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1979年 全北 營農代行會社가 농민들에 의해 조직되어 완주를 중심으로 80ha의 作業受託을 받아 1年동안 운영된 바 있다.⁵³⁾

6) 1980年 경남 농촌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진양, 경주, 김해, 창원, 창원 5개지역에 任意組合形式의 農事組合을 追進 그 結實을 보고 있다. 내용을 보면 畓農士를 座로하여 出資한 組合 經營이거나 그대로 둔 전체협업경영의 2가지 형태를 취하여 조합경영은 벼농사에 한하여 공동작업, 완전기계화 경영을 指向하고 생산과 분배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⁵⁴⁾

7) 강원도 춘성군 大坪里農事組合은 任意로 1979年 12月 조직,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 주민 전원이 조합원이 되어 1坪을 1口座로 1口座當 10원씩 조합비를 받아 協業的으로 운영하고 있

53) 농촌경제연구원: 농촌경제, 1980. 1. p.11.

54) 경남농촌진흥원: 農事組合設立計劃(print)

다.⁵⁵⁾

8) 農機械利用組織은 대개 個人 혹은 農業團體(農事改良組合, 單位農協等)에서 농기계를 보유하고 個別農家에 대하여 請負耕作을 해 주고 있다. 기계화 시범단지는 종합기계화 시범단지와의 移秧收穫機械化 示範園地가 있는데 ① 종합기계화 시범단지는 트랙터등 大型기계를 위주로 全作業을 一貫 기계화할 수 있도록 기계정비를 도입하여 園地內 희망농민의 耕地에 기계작업을 해주고 사전에 책정된 料率을 징수하고 있다.(이 시범단지는 1978年 현재 강원, 경기등 4個所에 農地改良組合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다) ② 移秧, 收穫기계화 시범단지는 이앙기와 바인더 2대씩을 지원하여 園地當 10ha 규모의 耕地에 請負耕作을 해주고 있다.(1978年 현재 전국 140個所에 설치되어 있다) 以上은 농기계 장비율의 불균형, 운영주체의 경험부족, 농민의 낮은 利用 등으로 기계 稼動率이 10~70%도 매우 저조한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한 改善 및 發展的 利用 組織開發이 요청되고 있다.⁵⁶⁾

9) 농기계에 따른 각종 농기계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영농기계화 센터 150개소 새마을 기계화 영농단 695개소를 農林部에서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以上の 事例를 中心으로 生産組織 pattern과 비교 우리나라에서 발전가능한 類型은 우선 다음과 같이 들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協業組織으로서 共同利用組織, 集團栽培組織, 農協型 또는 任意組合型的 受託組織, 分割制協業農場(divided Cooperative farm)型⁵⁷⁾ 등이 지금 發生, 發展되고 있다고 思料된다.

둘째 특히 分割制協業農場(經營)型은 單一農場方式을 실현하면서 生産單位를 個別로 分割하여 제각기 독립채산제에 의해 경쟁system을 도입하고 있는 型으로써 耕地整理를 施行하는 과정에서 生産組織化로 誘導시켜볼 만한 型이라 생각된다.

세계 農地法, 農協法の 改定⁵⁸⁾으로 農業生産法人, 農地委託事業制度를 가능케 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야 될 것이다.

네째 農業經營計劃과 地域開發計劃과의 聯關體系 確立인데 地域內 個別經營은 協業組織에 의하여 規模擴大를 도모하여 「生産單位」를 실현함과 동시에 專門化를 指向하여 이들 專門分化的 諸經營이 地域이라는 틀속에서 縱橫으로 Integrate되어 有機的인 結合體를 형성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農業經營의 地域的 接近이란 次元, 즉 小單位의 生産組織을 subsystem

55) 조선일보, 1980. 6. 5.

56) 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 농업구조개선과 기계화전략 .

57) M. Digby : Cooperative and Land Use, FAO Agricultural Development Paper No. 81.

58) 프랑스, 일본등 모두가 生産組織이 발전될 수 있도록 法的인 밑받침을 해주고 있는데 日本의 한 예를 보면, 農地法の 改正으로 農業制度를 둘수 있게 하고 있으며 農協法 改定에 따라 農事組合 法人制度和 農地信託事業의 창설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으로 하여 地域農業의 組織이란 total system이 형성될 수 있는 Agri-system에 대한 연구 및 地域計劃에 대한 研究活動이 기대된다.⁵⁹⁾

다섯째 生活 및 生産의 場인 마을(部落)을 生産組織體系와 여하히 結合시켜 나갈 것이냐에 대한 검토도 동시에 요청된다. 즉 지금까지의 부락은 단순한 地緣的 集會에 불과했지만 生産組織과 연관 經濟單位로서의 부락이라는 次元에서 검토가 요청된다.

여섯째 作目班 機能強化 即 既存作目班을 生産組織으로 발전시켜 生産, 流通의 最小單位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接近이 기대된다.

59) 拙稿: 「우리나라 農村開發에 대한 試論的 接近」 國民大學論文集, 1972. 참조.

拙稿: 「地域開發(計劃)에 대한 序說的 研究」: 國民大學 論文集, 1975. 참조.

— Summary —

A Study on Cooperative Groups for Agricultural Production

Kyung-sun Kang

1. In this research paper, I divided the steps of organization theory into classical organization theory, modern organization, human relations and related theories.

2. If organizations continue to develop internal conditions for formation, it is important for communication, willingness to serve and common purpose that these three elements of organization are closely connected with one another. The continuance and development of organization requires a balanced system of contribution inducement. Only natural resources, human resources and technical resources, the and basic resources for society, are factors in producing organizations. We must realize that cooperation between them can bring about economical benefits.

3. The modern significance of cooperative groups for agricultural production can be found in changing and reorganizing agricultural circumstances. Primarily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labor force from losing its quality and quantity of output, to cause a revolution in technics, and to improve the land system.

There are several types of organization as follows ;

- 1) an organization of a producer's own accord ;
- 2) an organization made by a group of producers ;
- 3) an organization made by capital having no relation to agriculture,

These can also be subdivided into several concrete types as follows ;

- 1) cooperative groups for joint labor ;
- 2) cooperative groups for joint use of agricultural machines and equipment ;
- 3) cooperative groups for crop growing ;
- 4) cooperative groups for contract farming ;
- 5) cooperative groups for livestock production ;
- 6) cooperative forming groups.

Among these groups, 1) joint farming groups, 2) cooperative groups for joint use of

agricultural machines and equipment as productive groups in a narrow sense, 3) cooperative groups for crops growing, 4) cooperative groups for contract farming and divided cooperative farm, 5) a middle-form between joint farming groups and cooperative farming groups are, thought to be ones that our country can develop in the future.

However, since production groups are results of human activity which are formed in three dimensions, they naturally have diversities. Further, each needs to be compared and investigated. I think it is very difficult to assert which is the best type in our situation.